

광주·전남 '워킹푸어' 6만가구 육박

<Working Poor>

연간 소득 1700만원 이하 '일하는 빈곤층'

1분기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2400명 증가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9만여 가구가 일부 연간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1분기 광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00여명 증가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4일 "올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 광주, 전남·

북서역 9만1000 가구에 우편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급대상자 10만 가구에서 1만여 가구가 준 것으로,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만8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위기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가 집계한 올 1분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3만221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787가구)보다 2423가구 늘었다.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 등 지원금도 지난해 1분기 375억여원에서 467억여원으로 104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격요건이 완화된 데다 서민들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수급자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

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 액 1억원 미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72만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77만원이었으며, 최소 수급액은 1만5000원, 최고 수급액은 120만원이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워킹 푸어(Working Poor)=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입원이나 실직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기면 바로 민생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열효율 10배 높인 신개념 난방시스템 개발

광주 (주)i&h '인트리아' 출시…난방비 90%가량 절감



장성의 한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i&h의 신개념 난방시스템 '인트리아'.

발열과정에서 새는 열을 막아 난방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개념 난방시스템이 개발됐다.

광주지역 난방기기 개발업체인 (주)i&h(아이엔에이치·대표이사 김현식)은 11일 "난방장치의 발열과정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아주는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난방기기에 적용한 신개념 난방시스템 '인트리아'를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트리아는 기존 유류 난방기기보다 열 효율은 10배 이상 높이고 운영비용은 90% 가량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권장하는 저열난방보다도 전력 소비량을 40% 가량 크게 줄였다고 덧붙였다.

또 설비비용은 저열난방에 비해 3분의 1수준이고, 유지비용도 6분의 1수준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지난 1997년 2월 기술개발을 시작해 2000년 완료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실증을 거쳐 지난해부터 장성군 등의 시설원예농가 등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제품 구성은 제어장치(반도체)와 발열장치로, 구조면에서 단순하다. 하지만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상업·가정용 운동 난방기, 온수보일러 등에 적용이 가능해 상용화될 경우 난방산업 및 광산업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난방기기 대비부분 원유를

사용하지만 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하면서도 원유보다 효율이 뛰어나 원유 절감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현식 대표이사는 "발열과정에서 노이즈(소음)나 전자파 등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차단해 열량화한 것"이라며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을 거쳤으며, 현재 특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울금, 전남 설성·대대포·나누우리

한국대표 막걸리 됐다

광주의 울금, 전남의 설성·대대포·나누우리 막걸리가 대한민국 대표 막걸리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는 '16강 막걸리 선발대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살균 처리하지 않은 생(生)막걸리로는 전남의 '설성동동주'·병영주조장, '나누우리'·순천주조공사, '대대포'·담양죽향도가 막걸리가 16강에 들었다. 광주에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축구 16강 진출기원 '막걸리 선발대회'에서 장태평 농림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16강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룩도가), '초가우리쌀 막걸리'(※초가) 등 4종이 선발됐다.

선정된 막걸리는 12일부터 경기

현대·기아차 신용등급

BB+ → BBB-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0일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이날 홍콩발 보도자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IDR)과 장기부보증사채 등급을 종전의 'BB+'에서 'BBB-'로 올렸다고 밝혔다. 피치는 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협상 잠정 합의

1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극한 대치를 해왔던 금호타이어 도급회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13일 만이다.

10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을 갖고 임금 3% 삭감, 상여금 50% 삭감, 상여금 50% 반납단, 올해는 제외)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6일 광주공장과 과성공장에서 합의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급회사들은 지난 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 내 출입금지 및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회사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200% 삭감하자 지난달 27일부터 광주·과성공장에서 부문별로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같은달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도급회사들은 지난 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 내 출입금지 및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회사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200% 삭감하자 지난달 27일부터 광주·과성공장에서 부문별로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협상 잠정 합의

1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극한 대치를 해왔던 금호타이어 도급회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13일 만이다.

10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을

갖고 임금 3% 삭감, 상여금 50% 삭감, 상여금 50% 반납단, 올해는 제외)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6일 광주공장과 과성공장에서 합의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급회사들은 지난 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 내 출입금지 및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회사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200% 삭감하자 지난달 27일부터 광주·과성공장에서 부문별로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1772 101-002-2532

(광주은행 신보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빌려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033-5221 101-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람 1층)

토지매매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⑥ 1,652㎡ (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묵인원, 식당, 풍차 적합, 유원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물등 공급지역

⑦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 (841평) 매도가 22억원

▶ 금호타이어 창고, 풍차 적합, 대로변, 1,247㎡ (1,480평) 매도가 22억원

▶ 신촌동 1,141㎡ (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신촌동 1,036㎡ (350평) 매도가 3억 5천만원 가능

▶ 마포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7호선 터미널 부지 도로변, 생산녹지 860㎡ (260평)

▶ 매매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 (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도가 2억 4천만원

▶ 광신동 1,000㎡ (333평)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수동 1744㎡ (528평) 매도가 1억 8천만원

▶ 박호동 645㎡ (195평), 648㎡ (196평) 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

▶ 찬동 1,466㎡ (488평) 창고, 물류, 풍차 적합, 대지, 매도가 3억 5천만원